

##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정추영<sup>1</sup>, 서영숙<sup>1\*</sup>, 강복희<sup>1</sup>, 조은하<sup>2</sup>

<sup>1</sup>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the Gender Role Confli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Chu-young Jeong<sup>1</sup>, Young-sook Seo<sup>1\*</sup>, Bok-Hee Kang<sup>1</sup>, Eun-ha Ch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sup>2</sup>Visiting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Science College

(Received March 20, 2019; Revised April 10, 2019; Accepted April 30, 2019)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gender role confli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were 113 male college students in D and J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4 to May 3, in 2017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4.0 program. For data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Result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gender role conflic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motivation( $F=2.62$ ,  $p=0.028$ ) and the entering college decision( $F=3.14$ ,  $p=0.028$ ),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entering college decision( $F=4.34$ ,  $p=0.006$ ). Second, a nega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gender role conflic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287$ ,  $p<0.01$ ). The success, power and competition( $\beta =0.19$ ,  $p<0.05$ ) and male superiority( $\beta =-0.47$ ,  $p<0.001$ ) were found to influence nursing professionalism.

**Conclus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develop educational intervention to lower the superiority of the male and to encourage success, power and competition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Gender role conflict,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ism.

---

\*Corresponding author : [seo16572@dhc.ac.kr](mailto:seo16572@dhc.ac.k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 결과 건강관리체계 내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치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sup>. 또한 간호사는 체계화된 직업의식 견해를 확고히 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념과 태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sup>2)</sup>.

간호전문직관이란 간호사의 직업의식 견해로서,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이 학교생활 및 임상실습에서의 간호사 이미지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 혼란을 겪는다면 간호 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여성이 대부분인 간호학과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받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은 여학생 집단 내에서 이질감과 고립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sup>3,4)</sup>, 간호사의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자 간호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4)</sup>. 남학생이 여성 지향적인 진로를 선택하여, 그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에 도전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sup>5)</sup>.

남자 간호학생은 여학생 집단 속에서의 소외감과 불편감을 극복하기 위해 점차 여성 문화에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여성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sup>. 이로 인한 갈등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어<sup>6)</sup>, 향후 남자 간호사의 실무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특성이 배제된 조직 규정에 불만을 갖게 되며, 임상실습 중 여성

환자에 대한 간호에서 제한을 경험하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sup>4)</sup>. 따라서 사회 속에서 접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남자간호대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간호의 전문성 확대에 힘입어 간호학을 지원하는 남학생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0년 662명(1.8%)에 불과하던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2011년 7,968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남자 간호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전통적으로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간호학과에 남자 간호대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 인식변화와 더불어 미래 간호의 필수 조건인 다양성 요구에 편승하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sup>4)</sup>. 한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직업인식은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방해가 될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문적 직업의식을 가진 남자 간호사 배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자 간호대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자 간호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임상실습과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sup>7,8)</sup>와 성역할 정체감<sup>9)</sup>과 전공만족, 남자 간호사의 이미지 등<sup>10,11)</sup>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등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2,13)</sup>, 반면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을 확인하여 간호전문직관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간호 전문직관을 파악한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간호 전문직관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변수로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와 J시의 4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와 학생회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남자 간호대학생 1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서면동의를 및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각 대학교 대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12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의 7부를 제외한 113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R^2=0.15$ ),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독립변수 7개로 산출한 결과 109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113명은 적절한 수준이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성역할 갈등

성역할 갈등은 ‘성공·권력·경쟁’ 8문항, ‘남성

우월’ 8문항, ‘가장 의무감’ 3문항, ‘일가정 양립 갈등’ 6문항, ‘감정표현 억제’ 7문항,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5문항으로 총 37문항이다. 6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일치 한다’ 6점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점으로 측정되며, 최저 37점에서 최고 22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sup>14)</sup>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9이었다.

### 2.3.2. 간호 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sup>15)</sup>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8였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간호 전문직관은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및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역할 갈등과 간호 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Stepwise)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나이는 평균 22세로, 21세~25세 66명(5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0세 이하 33명(32.5%), 26

세 이상 15명(12.5%)이었다. 1학년이 48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38명(31.7%), 3학년 24명(20.0%), 4학년 10명(8.3%) 순이었다. 병역 유무에서는 군필 76명(63.3%), 미필 39명(32.5%), 면제 5명(4.2%) 순이었다.

간호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취업 보장 57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적성에 맞아서 38명(31.7%), 가족친지의 권유 10명(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학 결정은 본인의 선택 78명(6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권유 25명(20.8%), 성적 9명(7.5%) 순이었다. 대상자 주변에는 남자 간호사 없는 경우 83명(69.2%)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113)

| Characteristics               | Division                                       | n  | %    |
|-------------------------------|--|----|------|
| Age                           | ≥20  | 33 | 32.5 |
|                               | 21~25  | 66 | 55.0 |
|                               | 26≤  | 15 | 12.5 |
| Grade                         | 1  | 48 | 40   |
|                               | 2  | 38 | 31.7 |
|                               | 3  | 24 | 20   |
|                               | 4  | 10 | 8.3  |
| Military service              | Completion                                     | 76 | 63.3 |
|                               | Exemption                                      | 5  | 4.2  |
|                               | Incompletion                                   | 39 | 32.5 |
| Selective motivation          | In aptitude                                    | 38 | 31.7 |
|                               | Many chances to go abroad                      | 4  | 3.3  |
|                               | Employment guarantee                           | 57 | 47.5 |
|                               | The recommendation of family & relative        | 10 | 8.3  |
|                               | High payment                                   | 7  | 5.8  |
|                               | Etc  | 4  | 3.3  |
| The entering college decision | By oneself                                     | 78 | 65.0 |
|                               | By grade                                       | 9  | 7.5  |
|                               | The recommendation of family                   | 25 | 20.8 |
|                               | The recommendation of teacher, senior & friend | 8  | 6.7  |
| Presence of male nurse        | Yes  | 34 | 28.3 |
|                               | No   | 83 | 69.2 |

### 3.2.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 정도 측정 결과 성역할 갈등은 평균 2.18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 하위 항목 중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이 3.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항목 중 전문직 자아개념이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The gender role conflic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subjects (N=113)

| Variable                             | M±SD      |
|--------------------------------------|-----------|
| Gender role conflict                 | 2.18±.78  |
| Success, power, competition          | 3.17±.77  |
| Male superiority                     | 1.98±.76  |
| A sense of duty about house chairman | 3.75±1.1  |
| Work-family reconciliation           | 3.29±.86  |
| Suppress emotional expression        | 2.71±.82  |
| Suppress affection with men          | 1.91±.87  |
| Nursing professionalism              | 3.79±.81  |
|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 3.97±.67  |
| Social recognition                   | 3.45±.77  |
| Nursing expertise                    | 3.82±.73  |
| Role of the nursing                  | 3.91±.84  |
| Uniqueness of nursing                | 3.97±1.09 |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 선택 동기(F=2.62, p=.028)와 진학 결정(F=3.14, p=.028)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에 갈 기회가 많아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와 성적에 의해 진학을 결정한 경우일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 병역, 주변 남자 간호사의 유무 등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진학 결정( $F=4.34, p=.006$ )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른 간호학과 진학 결정일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 병역, 학과 선택 동기, 주변 남자

간호사의 유무 등은 남자 대학생의 간호 전문직 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General-role conflic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subjects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13)

| Variable                      |  | Gender-role conflict |                 | Nursing professionalism |                 |
|-------------------------------|--|----------------------|-----------------|-------------------------|-----------------|
|                               |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 Age                           | ≥20  | 78.28±22.29          | .55<br>(.579)   | 69.64±13.64             | .57<br>(.569)   |
|                               | 21~25  | 82.03±15.00          |                 | 68.00±9.13              |                 |
|                               | 26≤  | 80.50±12.71          |                 | 66.40±8.86              |                 |
| Grade                         | 1  | 79.67±22.17          | 1.03<br>(.384)  | 69.65±12.40             | 1.93<br>(.129)  |
|                               | 2  | 78.38±16.45          |                 | 69.92±11.32             |                 |
|                               | 3  | 82.48±10.01          |                 | 65.04±6.70              |                 |
|                               | 4  | 88.60±5.32           |                 | 63.70±3.74              |                 |
| Military service              | Completion                                     | 81.65±12.63          | .40<br>(.669)   | 67.85±9.13              | .187<br>(.829)  |
|                               | Exemption                                      | 76.40±34.18          |                 | 69.60±13.05             |                 |
|                               | Incompletion                                   | 79.15±22.36          |                 | 69.02±13.31             |                 |
| Selective motivation          | In aptitude                                    | 87.08±20.44          | 2.62<br>(.028)* | 66.43±12.62             | 1.02<br>(.412)  |
|                               | Many chances to go abroad                      | 97.00±10.39          |                 | 60.50±10.08             |                 |
|                               | Employment guarantee                           | 77.39±14.85          |                 | 70.19±9.60              |                 |
|                               | The recommendation of family & relative        | 73.10±11.72          |                 | 67.40±8.79              |                 |
|                               | High payment                                   | 81.00±12.71          |                 | 68.28±13.69             |                 |
|                               | Etc  | 71.00±32.51          |                 | 69.00±2.44              |                 |
| The entering college decision | Person   | 78.10±15.88          | 3.14<br>(.028)* | 69.90±10.09             | 4.34<br>(.006)* |
|                               | By grade                                       | 96.11±24.19          |                 | 56.88±8.69              |                 |
|                               | The recommendation of family                   | 81.37±17.56          |                 | 67.52±11.69             |                 |
|                               | The recommendation of teacher, senior & friend | 84.00±17.20          |                 | 68.25±9.36              |                 |
| Presence of male nurse        | Yes  | 83.59±15.91          | .35<br>(.553)   | 65.44±12.42             | .47<br>(.495)   |
|                               | No   | 78.76±17.50          |                 | 69.60±9.80              |                 |

\* $p<.05$

### 3.4. 성역할 갈등과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과 간호 전문직관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자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은 간호 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87, p<.01$ ).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은 성역할 갈등의 하위 항목인 남성우월( $r=-.458, p<.01$ ), 감정표

현 억제( $r=-.223, p<.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relationship of the gender role discord of the research subjec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13)

| Variable                             | Nursing professionalism |
|--------------------------------------|-------------------------|
|                                      | r(p)                    |
| Gender role conflict                 | -.287 (.002**)          |
| Success, power, competition          | -.060 (.519**)          |
| Male superiority                     | -.458 (.000**)          |
| A sense of duty about house chairman | -.110 (.235**)          |
| Work-family reconciliation           | -.031 (.737**)          |
| Suppress emotional expression        | -.223 (.015**)          |
| Suppress affection with men          | -.345 (.000**)          |

\* p<.05, \*\* p<.01

###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역할 갈등의 하위영역과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진학결정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공·권력·경쟁( $\beta=.19, p<.05$ ), 남성우월( $\beta=-.47, p<.001$ )요인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권력·경쟁이 높고 남성우월이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총 설명력은 22.4%로 나타났다( $F=4.69, p<.001$ )(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subjects (N=113)

| Variable                                       | non-standardization factor |       | standardization factor | t      | p    |
|--|----------------------------|-------|------------------------|--------|------|
|  | B                          | SE    | $\beta$                |        |      |
| (Constant)                                     | .308                       | .162  |                        | 4.352  | .001 |
| Person   | 72.802                     | 5.363 |                        | 13.576 | .000 |
| By grade                                       | -6.877                     | 3.642 | -.17                   | -1.888 | .062 |
| The recommendation of family                   | -.559                      | 2.422 | -.02                   | -.231  | .818 |
| The recommendation of teacher, senior & friend | 1.841                      | 3.692 | .04                    | .499   | .619 |
| Success & power & competition                  | .327                       | .161  | .19                    | 2.033  | .045 |
| The male superiority                           | -.833                      | .242  | -.47                   | -3.436 | .001 |
| House chairman                                 | .264                       | .288  | .08                    | .919   | .360 |
| Work-family reconciliation                     | -.124                      | .211  | -.06                   | -.587  | .558 |
| Suppress emotional expression                  | -.015                      | .204  | -.01                   | -.073  | .942 |
| Suppress affection with man                    | .033                       | .334  | .01                    | .100   | .921 |

$R^2=.285, \text{ Adjusted } R^2=.224, F=4.69, p<.001$

## 4. 논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은 6점 만점에 2.1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지역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16)17)</sup>의 3.37점과 3.08점(6점 만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이 남자 간호대학생이라는 표본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갈등은 일반 남자 대학생보다 다

소 낮은 수준이나 성역할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79점으로 일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18)</sup>의 3.30점, 일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19)</sup>의 3.29(5점 만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1학년과 2학년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하여 성역할 갈등의 하위영역 중 '남성우월', '감정표현 억제'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인식,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할수록 남자답다는 인식이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해야하고 여성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생각, 감정표현을 억제해야 한다는 등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중 '남성우월'과 '성공·권력·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진학결정요인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학결정 하위요소 중 '본인이 스스로 진학결정은 한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이 진학결정에 있어서 타인 혹은 외부상황에 의한 선택보다 자기결정의 영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대학생의 진학결정 하위영역이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sup>20)</sup>,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 잘 적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효능감이 낮고 전문직 정체성의 혼돈이 높다<sup>5)21)22)</sup>. 또한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간호현장에서의 성차별적 업무 수행을 당연 시하는 문화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직업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sup>4)23)24)</sup>.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이 임상간호현장에 잘 적응하고 간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중재가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은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은 성역할 갈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이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의 변수는 학과 선택 동기와 진학결정이었는데, 외국에 갈 기회가 많아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와 성적에 의해 대학 진학을 결정한 경우 성역할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의 변수는 진학 결정이었는데,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학과를 선택한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과 남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공·권력·경쟁과 남성우월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권력·경쟁이 높고 남성우월이 낮을수록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총 22.4%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 적응과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성정체성과 관련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역할 정체성에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경우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 남학생의 경우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공·권력·경쟁 의식 향상과 남성우월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성평등 관련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3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References

1. Park GS. Korean male college students' gender roles and career compromis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8
2. Yoon E,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 1091-1100.
3. Lee JS.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2005;14(2):159-169.
4. Park IS.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Global Health & Nursing;2011;1(2):55-64.
5. Jeon HO, Yum EI.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4;12:796-805.
6. Hwang HM.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intention for men in nursing,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2016.
7. Kim SH, Hwang WD, Im BE. Th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2013;6:45-53.
8. Joo EK. Male nursing student experience with clinical practice in women s health nursing,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7):597-610.
9. Kim MA, Ko SH, Park EA.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2): 223-233.
10. Lim KM, Kim HY, Park GJ.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0):423-431.
11. Choi EY, Choi MJu, Park SBi.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3):334-344.
12. Lee ES, Park MS.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311-320.
13. Ham YH, Kim SN. The study of situational anxie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in pre-clinical practice, GeumGunonchong, 2001;8:45-54.
14. Lee SY, Kim IS, Kim JH. Development of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research repor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1;11.
15. Han SS, Kim YH, Yoo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3-79.
16. Kim KS. The mediate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relationship with gender role conflict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17.
17. Jang MR. Relation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ego-resiliency and sex-role conflict recognized by male



- undergraduate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3.
18. Ahn ES.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2010.
  19. Kim J 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role conflict in hospital for comprehensive nursing car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7.
  20. Lee KJ, Kim MY.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The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14;26(1):46-57.
  21. Yoon EJ. Factors influencing hospital nurses' turnover intention:A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2016; 16(1):94-106.
  22. Kim M, Jo SH, Jeon KS.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4; 22(3):109-119.
  23. Jang IS.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6;27(3): 749-761.
  24. Yoon HK.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5):658-667.